

설 명절, 강진에서 '음악듣고 자란쌀'로 선물하세요

유기농 쌀, 가족 건강 고려한 명절 먹거리로 주목 미 농무성 인증 영동농장 80ha서 생산 10톤 수출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 건강을 고려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음악 듣고 자란 쌀'이 건강한 명절 상차림을 위한 프리미엄 쌀로 주목받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음악 듣고 자란 쌀'은 벼의 생육 주기에 맞춰 모차르트와 베토벤 등 서양 클래식 음악과 사물놀이·농악 등 전통 풍물 음악을 들려주는 '그린음악농법'을 적용해 재배한 유기농 쌀이다. 이 농법은 작물의 생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미질과 밥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쌀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공기와

물이 깨끗한 강진군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자란다.

생산법인인 영동농장은 1998년부터 26년간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온 선도 농가로,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이었던 전임 대표의 철학을 이어 유기농 쌀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영동농장은 포트육묘 방식으로 튼튼한 모를 길러 밀식하지 않고 심는 재배 방식을 고수하며, 생육 전 과정에 음악을 들려주는 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약 80ha 규모의 논에서는 오전에는 클래식 음악을, 오후에는 전통 음악을 들려 벼를 재배한다.

'음악 듣고 자란 쌀'은 국내 유기농 인증은 물론, 미국 농무성(USDA) 유기농산



물 인증도 획득했다.

이러한 인증과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 프리미엄 유기농 마켓인 에러한 마켓에 백미 7톤, 현미 3톤 등 총 10톤의 쌀을 수출하며 품질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유기농 쌀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보성사랑(민생회복) 지원금, 설 앞두고 지급 순항 5일만에 지급률 90.3%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미담 사례 이어져

보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 중인 '보성사랑(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 개시 5일 차인 6일 기준 90.3%의 지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군민 3만 6천여 명을 대상 총 110억여 원 규모로, 전액 1만 원권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설 연휴 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표로 군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지역 상권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관내 한 상인은 "지원금 지급 시기에는 방문 고객이 증가하고 매출도 평소보다 많이 늘어난다"며 "설 성수기와 맞물려 매출 상승을 체감하고 있어 충

분한 물량을 확보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 마을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어르신인 "혼자만 쓰기보다 함께 나누는 게 더 뜻깊다"며 5만 원을 마을회관에 기부했고, 이를 계기로 다른 주민들도 나눔에 동참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보성사랑 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며 "아직 지원금을 받지 않은 군민은 3월 6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소지 바뀐다"고 안내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원금 지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양시는 도내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월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체크카드 바우처 방식의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28세 이하

광양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접수 시작 2월 9일부터 접수... 1인당 연 최대 25만 원 지원

(1998~2007년 출생자) 청년으로, 신청 개시일 기준 전라남도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2024년 2월 9일 이전부터 도내 거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도가 개선됐다. 다만 기준과 같이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대상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기간 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신청 후 1~2개월 이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공연·전시 관람, 학원 수강, 여행,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 활동이나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단, 온라인 결제는 불가하며 전라남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광양/신선호 기자

구례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후관리 방안 설명회 개최 사후관리 통해 마을 자립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전남 구례군은 지난 7일 구례읍 통합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후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이 종료된 135개 마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마을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공모 사업 정보와 기본적인 준비 사항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마을 관계자는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마을에서 이어갈 수 있는 사업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마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이 종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 컨



설명회와 사후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마을이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례/한정호 기자

무안군,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19~28세 청년 대상, 1인당 연 25만 원 문화복지비 지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2월 9일 이전부터 전라남도 2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1998~2007년 출생)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25만 원의 문화복지비가 지원된다.

문화복지비는 자격 요건 확인 후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전라남도 내에서 도서·영화·공연·학원 수강·여행

등 문화·여가 관련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구매나 타 시·도 사용은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농협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무안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061-450-5735),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6일 민족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재난대응단은 임도 및 주요 산림지역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산불 예방 활동을 병행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명절을 맞아 성묘객과 등산객 등 산림 이용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

화순군, 명절 앞두고 산림재난대응단 산지정화 활동 추진 임도·주요 산림지역 정비로 산불 인화물질 제거 및 산림환경 정비

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재난대응단은 ▲불법투기 된 생활쓰레기 수거 ▲영농 부산물 및 인화물질 제거 ▲산불 취약지 점검 ▲산불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과 임도 주변에 방치된 가연성 폐기물을 중점 정비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였다.

김두환 산림과장은 "명절 기간에는 성묘와 야외 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재난대응단을 적극 활용해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명절 연휴 기간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읽고 있는 것보다 더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일하고 싶은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냐
기억스레 생각해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더 크게 웃을 것
우어도 보는 것
한드서 기억할 것
잠시
평범한 것은
극한 사람,
평범한 것은